

녹색구매 실천단

이정아 | 여성민우회 생협 환경위원



여성민우회 생협 소속 녹색구매실천
단원들은 지난 10월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주원수지지원과
(주)하이우드를 방문하여 스티로폼이
회수 재활용되어 액자제품으로 생산
되는 현장을 견학하였다.

스티로폼의 변신은 무죄다 !!

매주 한번은 해야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때 무심코 버려지는 스티로폼을 돌아 본적 있나요?
김밥을 담아왔던 용기.
시절 지나 바꾸게 된 가전제품의 완충 포장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된장통을 담아왔던 박스.
좀 더 싸지 싶어 통째 구입한 10마리 들이 갇혀있는 생선박스 등등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집안에 들어왔던 스티로폼은 일주일도 길다싶게 기다렸
다 바로 버려지는 애물단지지요.
버리면서도 막연히 이 애들은 땅에 묻어도 쉬 썩지 않을 것이고 태우면
거기서 생기는 연기에는 얼마나 많은 화학독성이 들었을까 하면서 별별
아는 체를 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자원재활용으로 보나 친환경적인 측면으로나 효자
노릇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스티로폼을 모아 모아서 큰 통속에 넣어 분쇄, 용융하면 작은
구멍을 통해 가래떡 마냥 스티로폼이 뽑아져 나옵니다. 스티로폼에 들어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는 과정인데 이 1차 생성물을 '잉고트'라고 한답
니다. 가래떡 마냥 뽑아진 스티로폼은 열기가 가시고 나면 벽돌만큼 단
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갈처럼 잘게 부수고-녹여서-실타레마냥 가늘
게 뽑아서-잘게 자른 다음-다시 녹이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변신
의 끝에 다다릅니다.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에 꼭 들어가는 몰딩.
벽에 걸린 근사한 액자 프레임.
베란다에 깔린 방부목으로 알고 있던 마루판.
화장실에 놓여있는 발판 등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것과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을만큼 독보
적이라는 점. 수 많은 나무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원목 대체 상품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는 점이지요. 폐 스티로폼에 대해 이제는 애물로
만 불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넵부터 당장 스티로폼을 내 놓을 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게 한번 정도
씻어서 내 놓기.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아주 잘 분리해 놓기.
이를 이웃들에 적극 알려 함께하기~~~로 해요.



녹색구매실천관 여성민우회